

영겁으로 흐르는 감탄의 '佛心藝心'

'미술의 해'를 보내기가 아쉬운 듯 새해 벽두부터 대형 전시회가 잇따라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김홍도展, 몽골전통예술의 시조 잔바찰의 불상이 돋보이는 대 몽골展, 지난해 6월 베니스비엔날레 출품작들의 귀국展이 그것이다. 이중 불교와 관련된 화제작들을 모아 지상展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남해 관음도 관음보살을 그린 것으로 독특한 도상의 성격에서부터 지극히 조선적 형식으로 완성시킨 김홍도의 민본적



염불서승도 침선에 몰입해 있는 노승의 뒷모습에서 김홍도의 무한한 불교세계를 엿볼 수 있다.

신촌 불교미술 지상전

김홍도전 연일 관람객 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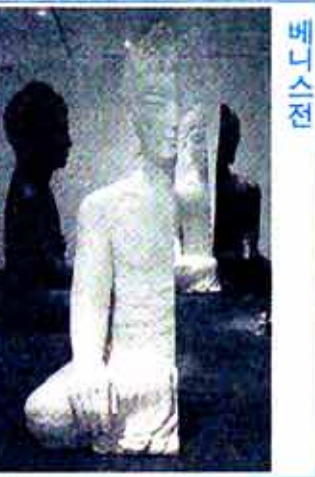
0... 김홍도(1745~1806)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오는 2월25일까지 열리는 김홍도 특별전에 출품된 작품은 3백여점. 산수 풍속 인물 도화(道畵) 영모 화조 사군자 유묵 등 김홍도의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작들이 대거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김홍도가 불교신자였음을 보여주는 '남해관음도' '염불서승도' '지관관림'과 용주사에 정인돼 있는 '삼대여래탱'이 전시돼 불자들의 관심을 끈다.

대몽골전 초원문화 한 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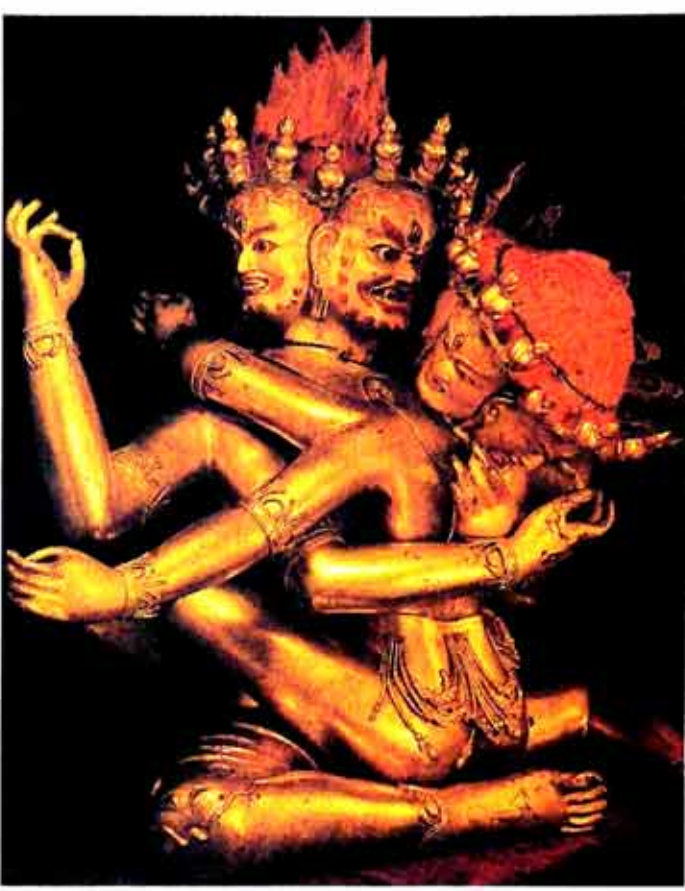
0... 찬란한 몽골문화가 서울에서 화려하게 피어난다. 서울시와 몽골국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의 자매 결연을 기념하는 '칭기즈칸의 영광-대 몽골展'이 지난 8일 개막, 오는 3월27일까지 서울 신문로 시립미술관 6백년 기념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몽골유물은 총 2백 26점. 몽골의 국립박물관 및 지역 박물관, 고고학 연구소, 국립도서관, 국립도서관 등에 소장돼 있는 국보급 칭기즈칸(1162~1227)시대의 무구류를 비롯해 의상금은제 장식품 생활용품들이 풍부하게 있다.

베니스전 설치미술 등 주목

0... 지난해 6월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됐던 베니스 비엔날레의 특별전인 '호랑이의 꼬리' 귀국전이 오는 23일까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 창설 1백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전시는 안성규 하종현 윤영로 이상삼 심문섭 등 한국적인 미와 정신 우리의 역사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해 온 작가 15명이 참가했다. 한편 내달 10일부터 한달동안 예술의 전당 제1전시실에서 역시 베니스비엔날레 귀국전이 열린다. 특별상을 수상한 전수천 씨와 죽은 윤영근씨 등의 출품작이 전시될 예정이다.



베니스전



대몽골 전 마하미야 중생들에게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몽골의 대표적 불상. 남성부처를 마하미야, 여성부처를 사그린이라 하고 지비를 베푸는 뜻에서 여러 방향으로 손을 뻗고 있으며 여성을 숭상하는 의미로 여성부처를 안고 있다.



황금으로 쓴 불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고귀하게 담는다는 뜻으로 몽골인들은 금과 은 각종 보석을 이용해 불경을 만들었다.



KBS 연기대상 탤런트 나문희 씨

KBS 일일연속극 '바람은 불어'에서 구상진 공안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개랄스러운 칠순노파의 연기를 보여준 탤런트 나문희(56세)에게 있어 96년은 더욱더 무르익은 연기가 나올 것만 같이 서늘이 비치는 해다. 왜냐하면 그 공안도 할머니 역으로 지난 연말 연기대상 30년만에 연기자들의 최고 영예인 KBS 연기대상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지난 69년 MBC 성우 1기를 시작으로 방송과 인연을 맺은 그녀는 30세가 되던 해 MBC 드라마 '이상한 아이'에서 명계암마역으로 브라운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이후 '나의 어머니' '희망' '여고 동창생' '시장 사람들'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꾸준한 연기 활동을 해왔고, 방송계에서는 일찍이 성실한 연기와 배우로 정평이 났었다.

"자비와 지혜" 좌우명 연기생활 30년만의 행운

경국사 신도...법명 '칠보화' 은 사람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해인사 주지 지관스님께서 사상식 바로 다음날 저에게 축전을 보내셨을 때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라는 나문희씨는 15년째 정동 경국사에 다니는 독실한 불자다. 지관스님과의 인연도 경국사에서 시작했다. "칠보화라는 제 법명도 지관스님께서 지어 주셨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촬영스케줄도 늘 바쁜 그녀지만 매일 관음재일 지관스님의 설법이 있는 날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경국사에 나가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나문희씨는 "불자는 자비로울 때는 한없이 자비로워야 하지만, 지혜로워야 할 때는 또 반드시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산다며 "연기활동은 물론 나의 삶을 자비롭고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겠다"며 노인 분장을 마친 분기어린 얼굴로 다시 촬영에 들어섰다.

이은지 기자

생활속의 불교 ⑤

자기를 섬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라

부처님께 붙여진 열 가지 명호는 모두 다 부처님의 큰 덕을 기리는 이른바 덕명(德名)이다.

인 (人)·천(天)으로부터 존경받고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이(응공·應供)

바르고 완전하게 진리를 남김 없이 깨달은 이(정견지·正得知)

지혜와 연행이 다 함께 완전한 이(명행주·明行足)

미혹의 세계를 잘 뛰어 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선사·善逝)

세간·출세간의 일을 다 아는 이(세간해·世間解)

세간에서 가장 높은 이(무상사·無上士)

중생을 잘 조복·제어하여 열반에 인도하는 이(조어장부·調御丈夫)

미혹중생, 특히 하늘과 사람을 인도하는 이(천인사·天人師)

깨달은 이·노튼 이(불타·佛陀)

많은 덕을 갖추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이(세존·世尊)

그러나 이 열 가지 명호 가운데 어느 것도 부처님을 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깨달은 이, 진리의 길을 발견한 이, 그래서 더욱 존경받아야 할 분이라고는 해도 없으려 믿어야 할 대상, 복을 내려 주실사 기원할 대상이라는 뜻은 없다. 왜 그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진리(법)는 진리로서 확정되어 있었지 부처에 의해 만들어진(창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는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이며,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분이다. 그래서 부처는 위대한 스승인 것이다. 미혹한 우리들을 향해 '그대들도 오라, 와서 보아라. 이 길은 현실적으로 볼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니 누구든 와서 보아라. 길은 열려 있다'라고 손짓을 해 준 분이요. 우리가 머리 숙여 존경하고 숭배하는 까닭은 길을 발견하고 가르쳐 준 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하고 보여 주지 않았다면 그 길을 몰랐을지도 모른다. 길을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정로 머리가 숙여진다. 그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 전에 없으려 복을 주십시오! 빌고 빌다. 돈을 빌게 해 주시오. 합격하게 해 주시오. 건강하게 해 주시오...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면서 빌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내용을 낱알이 보여 주셨다. 따르 비밀스럽게 감춰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셨다. 지혜 있는 이는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비밀 주머니는 없다고 하셨는

태도 사람들은 내게만 그 주머니를 열어 주십시오 빌고 빌다. 막무가내로

법 규경은 말한다. "자기를 섬으로 삼고 자기를 의지처로 삼아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자등명 범등명(自等明 法等明)의 말씀이다.

이렇듯 분명히 '자기의 의지처는 자기뿐이니 그 밖에 또 무엇을 의지하라' 하였는데도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기록에 매달린다.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이 자처하는 셈이다. 말 안 듣는 제자를 좋아하는 스승이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그 열 가지 명호처럼 인·천의 위대한 스승이시니 그런 제자도 공휴히 여기실까?

지혜 있는 이는 저마다 스스로 알리라.

협찬: 주인공